

한국 서양화단 선구자 오지호의 생애를 돌아보다

‘오지호와 인상주의: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

내년 3월2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 회화작·아카이브 등 200여점 전시 탄생 120주년 앞둔 서양화단 선구자 프랑수아 인상주의 작품 VR 체험도

“아름다운 것을 그렸더니, 그게 조국이였다.”

빛과 생명을 근원으로 순수한 색채를 투영해 ‘한국 인상주의’를 개척한 오지호 화백의 전시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지난 15일부터 열리고 있다.

전시 ‘오지호와 인상주의: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는 오는 2025년 오지호 탄생 120주년과 1874년 열린 제1회 인상파 전시 150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도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전시는 화가이면서 민족주의자였던 오 화백의 독자적 예술세계와 미술계에서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논문 등을 통해 드러난 그의 인생관을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찾은 전남도립미술관 현장. 오 화백의 회화작품 100여점, 아카이브 100여점,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이젤과 팔레트, 작업복 등)이 전시장을 가득 채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상주의의 시대적 의미와 현대적 의의를 재고하기 위해 오지호, 김홍식, 김용준이 작업한 초상화 등 일본 동경 예술대학 졸업작품과 일본 동경예술대학

교수이자 일본의 대표 인상주의 화가인 오카다 사브로스케, 후지시마 다케지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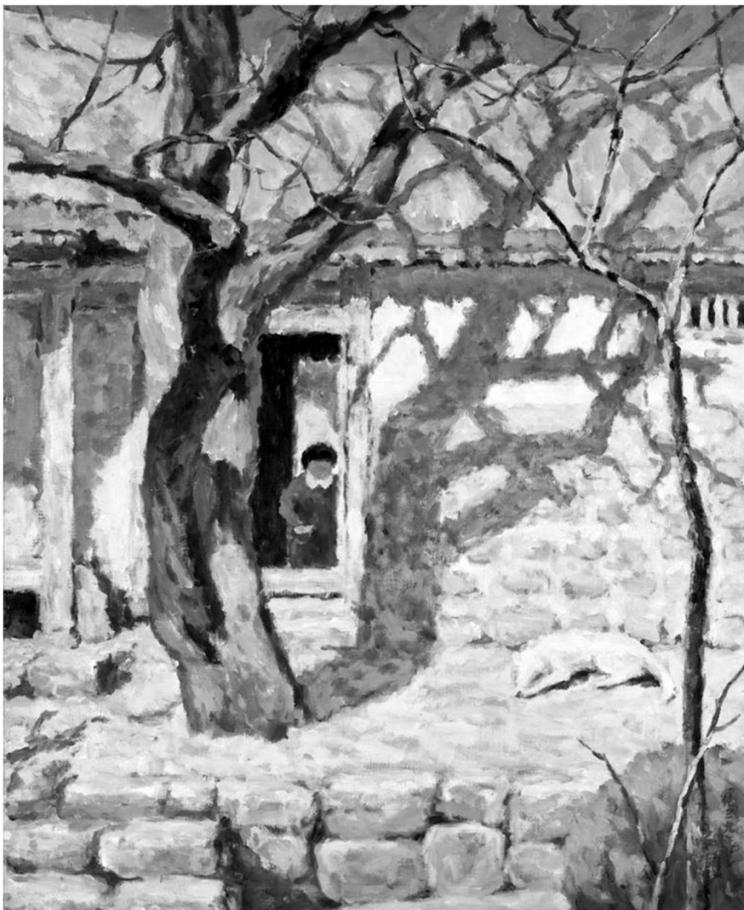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크게 설명과 연표 등으로 이뤄진 인트로와 3부로 나눠 구성됐다. 인트로는 9전시실, 1부 8전시실, 2부 7전시실, 3부 6전시실에 각각 마련됐다.

먼저 1부 ‘인상주의를 탐색하다’는 1920~1945년 작품들로 채워졌다.

동경예술대학 유학 시절 제작한 작품과 한국 최초 서양화 미술 단체인 ‘녹향회’ 활동 등을 감상할 수 있고 1930년대 개성 송도 시절에 출간한 한국 최초의 원색화집 ‘오지호·김주경 2화집(1938)’에 수록된 ‘처의 상’, ‘임금원’과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남향집’ 등이 전시됐다.

이어 2부 ‘남도 서양화단을 이끌다’는 1946~1970년 해방 이후 산 풍경과 항구, 배, 바다 풍경을 비롯해 꽃과 식물, 열대어 등 남도 서양화단을 주도했던 시기의 작품들로 수놓았다. 이와 함께 오 화백의 화업을 이어간 장남 오승우(1930~2023), 차남 오승운(1939~2006), 장손 오병욱(1958~)의 대표작품도 전시됐다. 마지막으로 3부 ‘한국 인상주의를 구현하다’는 1971~1982년을 다루는데 남도의 풍경뿐만 아니라 1974년, 1980년 두 차례의 여행을 통해 담아낸 유럽풍경들과 유작으로 남긴 미완의 작품 ‘세네갈 소년들(1982)’을 만날 수 있다.

1905년 화순에서 태어난 오 화백은 한



오지호 작 ‘남향집’(1939).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국의 서양화가, 인상주의 화풍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여 서울 휘문고에서 고회동 교사의 지도로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시작한 그는 이후 일본 동경예술대학교에 입학해

서양화과를 전공한다.

그의 일생은 시대적 격동기가 관통한 ‘인(因)’과 ‘육(辱)’의 연속이었다. 실제 그는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전쟁기록화 제작을 거부했고 민족미술 이념을 내세운

녹향회 활동으로 조선총독부의 탄압을 받았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에 휘말려 남부군에 끌려가 빨치산 생활을 견뎌야 했고 1960년대에는 4·19혁명, 5·16군사정변 직후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와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시대적 풍파를 견뎌낸 그는 1960년대 광주·전남 화단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한다. 1965년 전남도립미술전람회를 설립해 후학을 양성하고 예술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데 남은 생애를 전념한다. 1982년 작고하기까지 무등산 아래 광주 시산동 초가에서 남도의 풍경과 정취를 담아 실천적 예술정신이 반영된 작품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관장은 “오지호의 손자들은 오 화백을 ‘한국적 인상주의’라는 프레임에 가둬 놓는 것에 부정적”이라고 전하며 단순한 ‘인상파 화가’로 함축하기에 그의 삶은 보다 거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를 위한 유족들의 도움이 컸다”며 “전시관을 찾은 관객들이 빛과 색채로 표현된 오 화백만의 생명의 찬가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시와 연계한 VR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187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회 인상파 전시 15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의 인상주의 대표작가인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예술세계를 VR로 체험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오지호와 인상주의: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는 내년 3월2일까지 개최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전남문화재단, 지역 예술인과 사업 발전방향 논의

‘2025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청회’

19일 전남개발공사빌딩 대강당

전남문화재단은 ‘2025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설계’를 위한 예술인 공청회’를 19일 전남개발공사빌딩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18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역 문화예술 가치 제고와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자 계획됐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했고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세부 순

서는 △2024년도 사업 주요성과 공유 △2025년도 사업 추진방향과 핵심 개선사항 안내 △예술인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위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도 자리에 참석한다.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오는 12월 첫째 주부터 공모를 진행하며, 세부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찬 기자

가수 알리, 광주서 20주년 콘서트 ‘용진’

내달 3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대표곡·미공개 신곡·편곡 등 공연

가수 알리(Ali)가 음악 인생 20년을 맞아 특별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다음 달 3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리는 알리 20주년 콘서트 ‘용진’은 그의 본명을 콘서트 제목으로 정함으로써 용감할 용(勇)과 나아갈 진(進)이란 뜻을 담은 굳건한 음악 여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목소리와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365일’, ‘지우개’ 등 히트곡들은 물론, 다양한 드라마 OST를 통해 한국을 대표

하는 발라드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구성으로, 대표곡들뿐만 아니라 미공개 신곡과 새롭게 시도한 편곡 무대도 마련된다.

알리는 “용진이라는 이름처럼, ‘용감하게 나아가다’는 의미를 담아, 지나온 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지켜온 시간이 자랑스럽다”며 “팬들과 함께 이 시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진’ 콘서트는 다음 달 3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알리는 이번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에서 순회공연을 이어간다.

박찬 기자

왕건과 장화왕후의 전설을 피리로 듣다

‘박혜민의 피리 독주회Ⅱ’ 공연 23일 빛고을국악전수관서 무료

‘박혜민의 피리 독주회Ⅱ(사진)’ 공연이 오는 23일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 박 상임단원은 ‘박혜민의 피리 독주회Ⅱ- 피리소리’라는 주제로 향피리, 세피리, 대피리 등 다양한 종류의 피리 소리를 바탕으로 총 5곡을 선보인다.

첫 곡은 ‘서용석류 피리산조’로 서용석 명인이 어린 시절부터 평생 배우고 즐겼던 남도 음악의 맛을 피리 선율로 옮긴 산조다.

두 번째 곡은 ‘천년만세 주제에 의한 영원’으로 세피리로 연주되는 곡이다. 천년만세는 궁중에서 사용되던 음악으로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 번째 곡은 ‘저뭍’으로 대피리와 건반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창작곡인 저뭍은 지나가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되짚어 보며 피아노의 아름다운 음색이 대피리의 따뜻한 음역과 조화를 이룬 소리를 선사한다.

네 번째 곡은 이번 공연을 위해 작곡가 강술앞에게 위촉된 초연곡 ‘여희재’다.

광주 광산구에 전해 내려오는 왕건과 장화왕후에 관한 전설을 소재로 작곡된 곡으로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과 다시 만나고 싶은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향피리와 거문고, 해금, 건

반, 퍼커션이 함께 연주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곡은 ‘박종선류 태평소 시나위’다. 태평소는 국악기 중 관악기로 분류되는 악기로 궁중음악과 민속음악 등에 폭넓게 쓰이는 악기다. 태평소 시나위와 함께 건반과 징, 장단 I, 장단 II, 퍼커션 등의 악기를 합주하며 모든 출연진이 함께 공연의 마지막을 수놓는다.

박 상임단원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를 졸업 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주시립국악단의 상임단원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서 피리를 주제로 한 협연과 다수의 해외 공연, 국내외 콘서트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박선영 광주 예술고등학교교사, 박준호 진도 국악고등학교 교사, 박선호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 총무, 정민조 국악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이수자, 이영미 청암 전국고수대회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자, 강술앞 대한민곡 작곡상 수상자도 자리

에 함께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 빛고을 국악 전수관(062-350-4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